

군산사랑상품권, 연일 고공행진

310억원 전액 판매... 시민참여가 성공 밑그림

군산시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부터 발매를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사업추진 2개월 만에 1~2차 발행금액 310억원이 전액 판매됐으며 현재 (11.19.기준) 총군산사랑상품권이 사업추진 2개월 만에 1~2차 발행금액 310억원이 전액 판매발행 2개월 만에 완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역 중 최단기간 판매이며 이중 상품권 전체 판매액의 95%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가맹점이 7,900여개가 넘어서는 등 군산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과 순환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을 한 블로거가 SNS를 활용해 특정 가맹점을 지목하여 가맹점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가맹점 확대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관내 소재한 통신통계 대리점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해 이동전화 구입할 경우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군산사랑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미용실에서 상품권 이용 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상품권 가맹점 플래카드, 배너 등을 자체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상가번영회 및 시장상인회 등에서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사랑상



군산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품권을 많이 애용해주시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을 확대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할인을 유지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해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내 소비 창출을 통한 시민의 소득과 생활을 증대시키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또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지역자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구직자 15가정을 부부캠프로 초청했다.

소통과 공감 부부캠프 운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구직자 15가정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는 지역 내 고용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관내 구직자 15가정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 부부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부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결혼과 가족의 가치 ▲다가가는 대화 ▲부부 치료놀이 ▲힐링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고 부부만의 힐링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1차 캠프에 참여했던 시민 A씨는 "부부에 대한 감의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서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캠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1차 부부 힐링캠프를 운영했으며, 힐링캠프 외에도 1대1 심층상담 및 마음관리 집단상담, 미술심리치유, 스트레칭 및 힐링을 위한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21일 익산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승교육관에서 열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구충근 화순군수(협의회 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정섭 공주시장을 비롯한 11개 회원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현재 익산, 공주, 부여(백제역사유적지구), 종로구(종묘, 창덕궁), 수원시(화성), 합천군(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시(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지구, 양동마을),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고인돌유적), 안동시(하회마을), 성북구(정릉, 의릉), 광주시(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을 보유한 13개 시군구단체장 협의회로 세계유산 보유도시간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창립되어 도시를 순회하며 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익산에서는 2015년 회원가입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리향제물공공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2016년)에서 발의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회원도시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도시 5곳(양산시, 영주시, 보은군, 순천시, 해남군)의 회원가입도 승인되었다. 이로써 협의회 회원도시는 13곳에서 18곳으로 늘어 향후 협의회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 보유도시가 모두 모여 협의회가 개최되어 자부심으로 느껴지며, 앞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활성화 등 현안에 대하여 회원도시들과 긴밀하게 공동협력·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 '베플' 팀, 목포대 'FN워너비' 팀과 연합 캠페인

원광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베플' 팀이 목포대 서포터즈 'FN워너비' 팀과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거리에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펼친 캠페인은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를 비롯해 피임 및 임신실천책 등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현을 시장, "관내업체 우선계약 지역경제 활성화"

정현을 익산시장이 최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관내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익산시는 2018년 10월말 기준 63.4% (전체 계약 건수 3,002건 중 1,906건)를 차지한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2019년도에는 3%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대규모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재,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제정한 이후, 각종 관공공사 등 관내업체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고, 모든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관내생산 자재·제품을 공사설계부터 적극 반영하는 등 관내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보조단체의

사업시행 시에도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외업체 구매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내에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청 전 부서가 함께 관내업체 계약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어린이 과학미술공연

군산시는 오는 12월 1일 토요일 11시와 14시에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미술공연인 '어서와, 과학미술은 처음이지?'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평소 멀게만 느끼고 있던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은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어린이공연장정보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지원 캠페인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지정해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홍보 및 지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에서는 계절적 실업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취약계층과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한 시민은 신청조사를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나 중저자,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상태인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는 월 9만 6천원의 연료비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제문제 외에도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계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캠페인을 통해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펴주고 알려줌으로써 서비스 혜택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겨울철은 연료비 등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가구소득은 감소되는 양상이 있어 저소득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캠페인 및 복지 상담은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454-3080)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